

문화공감 2015 <2> 1인 독립출판물 월간 '미정'

내 맘대로 만든 책, 네 맘속에 '공감'



발행인 정미정씨

지난해 말 취재차 들렀던 광주시 동구에 있는 문화공간 '보헤미안'(Bohemian)에서 우연히 작고 귀여운 잡지를 발견했다. 인디 가수들의 앨범 판매대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진열된 이 잡지가 시선을 끄는 이유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청춘들을 위한 매거진'이라고 적힌 문구 때문이었다.

성인 손바닥보다도 작은 크기의 이 잡지는 조그마한 비닐 봉투에 싸여 판매되고 있었다. 가격은 단돈 2000원. 발행인이 뒷면에 적어 놓은, 책을 펴내게된 구구절절한 사연을 읽자 호기심이 일었고, 책을 구매하게 됐다.

"스마트폰보다 더 많은 양의 글을 담을 수는 없지만, 스마트폰보다 빠른 속도로 책을 만들어 낼 수도 없지만 그래도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글자들을 당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잡지 이름은 '월간 미정(未定)'. '월간 미정'을 구매하자마자 비닐 봉투를 뜯고, 책의 가장 마지막 장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발행인 '정미정', 편집인 '정미정', 글 '정미정' 등을 비롯해 교

손바닥 보다 작은 잡지 글·편집·교열·디자인에 오색실·바늘로 묶기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서 매달 50부 이상 발행

정·교열, 디자인, 표지 디자인, 표지 일러스트, 본문 일러스트 등 모든 제작 과정에 '정미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혼자서 펴낸 '독립출판물'이었다.

'월간 미정' 발행인 정미정(여·28)씨가 잡지를 펴내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3년 9월부터다. 페이스북 등 SNS에 소소한 일상을 비롯해 이런 저런 이야기를 올리는 것을 좋아했던 정씨는 어느때부터가 '그냥 흘러 가버리는 느낌'을 주는 SNS에 한계를 느꼈다. 그런 글들을 모아 책을 만들어 기록해보자는 생각을 했다. 나만의 책을 만들 수 있다는 매력에도 끌렸다.

정씨는 "평소에도 인디서적(독립출판물)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책들을 구매해 읽고 있었다"며 "인디서적에서는 일반적인 책에서는 찾을 수 없는 매력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든 일련의 제작 과정은 집에서 진행된다. 편집 회의부터 디자인, 편집 등 과정을 물론 정씨 혼자서 뚝이다. 전체적인 챗터를 정하고, 글을 쓰고, 편집을 마친뒤에 프린터로 인쇄해 본인만의 관행에 맞춰 가위로 자른다. 그리고 바늘과 알록달록한 오색실로 책을 묶으면 모든 제작이 마무리된다.

처음에는 10부 정도를 만들어 지인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SNS 등과 독립출판물 전문서점 등에서 알려지면서 매달 50부를 발행한다. 지난해까지 모두 16호가 나왔고, 조만간 1월호가 발행될 예정이다. 최근에는 카카오톡(jmj6877)과 메일(jmj881217@naver.com)을 통해 들어온 글들을 기고 형식으로 게재해 주기도 한다. 월간 미정은 우편으로도 받아 볼 수 있다. 한편 정씨는 밴드 '혼전순결'의 드러머로 활동 중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독립출판물 인기...온·오프라인 매장도

최근 '월간 미정'과 같은 독립출판물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독립출판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서점과 온라인 사이트도 잇따라 생겨나 매니아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독립출판물의 가장 큰 매력은 판형과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즉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펴내는 사람이 원하는 판형에, 원하는 글과 사진, 그림을 담으면 된다. 때문에 발행인의 정형화된 생각의 틀을 뛰어넘는 개성과 재치를 만날 수

있다. 집에서 출력하는 책부터 전문적인 인쇄소에 맡겨 펴낸 책들까지 종류도 다양하고, 수십부부터 수백부까지 찍어내는 양도 천차만별이다.

일본 전역에 있는 역의 스탬프 380점을 모은 '기차역 스탬프 디자인', 1년에 두번 발간하는 노치너 전용 잡지 '노치너에게 건네는 농', 버스여행 가이드북 '버스생각', 인문학 강좌에까지 등장한 '월간인어', 비연애인구 전용잡지 '계간홀로', 이별 후 힘든 시기를 겪을 '9여친'들을 위한

'9여친복스', 퇴사를 망설이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백수로 접어든 이들에게 위로 건네는 '두번째 퇴사' 등 출판의 정석을 파괴한 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독립출판물들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매장도 인기다. 독립출판물 서점의 원조격인 '유어마인드'(www.your-mind.com)를 비롯해 '더북소사이어티'(www.thebooksociety.org), '더폴라라 팅태'(blog.naver.com/thepollara), '도어북스'(www.doorbooks.net), '프림 더 북스'(fromthebooks.com) 등이 있다. 특히 이들 서점을 통해 본인이 감명 깊게 읽은 해외 서적을 번역해 출판하는 이들도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Schwarze Malerei'

김유섭 '원초의 풍경'

2월 1일까지 상륙전시관

거친 표면은 역동적이면서도 날카롭다. 두터운 흑색 물감을 켜켜이 쌓인 세월을 말하는 것도 같다. 거친 표면에서 강렬한 생명력과 태초의 원시성이 느껴진다. 작가는 감정적 몰감 덩어리들을 캔버스에 바르면서 회화의 뿌리를 찾고자 했다. 칠흑같이 어두운 화폭에도 한 줄기 빛은 비친다.

"검은 회화'(Schwarze Malerei)' 연작으로 유명한 김유섭(55) 조선대 미술교수가 2월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상륙전시관에서 '원초의 풍경'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광주시립미술관이 해마다 창의성과 두드러진 작업역량으로 미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작가들을 초대하여 여는 중견작가초대전이다.

김 교수는 상륙전시관 전관에서 '검은 회화' 시리즈를 비롯해 회화와 드로잉 작품 60여점을 선보이고 있다.

김 교수는 1980년대 조선대를 졸업하고 철학의 본고장 독일로 떠났다. 작업

이전에 철학을 먼저 고민해왔다는 생각때문이었다. 10여년 간 독일에서 머문 김 교수는 동·서독일의 냉전체제와 독일의 통일 등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접하면서 '회화의 발원점'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 그런 고민의 과정에서 '검은 회화' 시리즈를 완성했다.

2000년 이후에는 검은 회화에 차츰 붉고 푸르스름한 색이 섞이기 시작한 'Energy Field'시리즈를 내렸고, 최근 들어서는 밝은 원색으로 화면을 구성해 활활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Piece of Paradise'를 선보이고 있다.

작가는 "'Piece of Paradise' 연작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기운의 흐름을 색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태초의 어둠과 그 이면을 탐구하는 검은 회화 시리즈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조선대 미술대학과 동대학원, 독일 베를린 미술대학과 베를린 국립예술종합대학교, 예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문의 062-613-5401.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문예회관 2015 기획공연 작품 공모

'남도소리상설무대' '화요예술무대' 각 8개씩

광주문예회관(관장 임안섭)이 2015 기획공연 작품을 공모한다. 공모분야는 '남도소리상설무대'와 '화요예술무대' 2개 분야이며, 각각 8개씩 공연작품을 모집한다.

남도소리상설무대는 창극, 판소리, 전통무용, 풍물 등 전통국악 작품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화요예술무대'는 음악, 무용, 연극, 콘서트 등 현대공연 작품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차 서류심사와 대학교수, 예술인, 전문가 등 14인으로 구성된 '광주문예회관 운영 자문위원회' 2차 심사를 거쳐 올 2월말에 최종 당선작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공연 작품으로 선정될 경우 광주문예회관은 공연장 무료 대관, 장비·기계·시설 운용인력 등을 제공한다.

선정단계는 공연기획, 제작, 홍보 등과 진행경비를 부담하고 입장료 수입은 공연자들이 직접 관리하게 된다.

15일부터 28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서는 광주문예회관 홈페이지(http://www.gjart.net)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062-613-835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연말 송년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2014년 12월 15일 ~ 2015년 3월 15일 제주도여행 폭탄세일

나는 제주여행을 (2박3일) ₩109,000원에 갈다~

선박(씨스타크루즈) 08:50 목포항출발 ₩109,000원 ~ 항공(아시아나) 15:40 광주공항출발 ₩189,000원 ~

1일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 08:00 목포항집결 항공 14:30 광주공항집결 조식후-아침이 이쁜슬입바다~외돌개 올레6,7코스트래킹 석부적테마농원-감굴따기체험-중문포구~별내천전망대, 천연난대림지대 중식후-카멜리아 힐-겨울의꽃 동백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30 제주항도착직원미팅 16:20 제주공항도착직원미팅 제주항도착직원미팅 광주기해안-제주의오름을 한눈에볼수있는 드라이브산간도로 홍천리안 마상소(현지직방) 동굴리안 마상소(현지직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물원테마파크-아이스뮤지엄-트릭아트 HOTEL : 일반호텔(4~6인실) 서커스월드or코끼리코스(현지직방) HOTER : 일반호텔(4~6인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식 : 자유식 석식 : 호텔식 중식 : 호텔식 석식 : 호텔식
2일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식후-민공예품전시관~조형미술체험 제주성읍민속보전마을체험-중식-광기해안-제주의오름을 한눈에볼수있는 드라이브산간도로 에코랜드-기차타고곳자왓(자연원시림)숲지대관광 중식후-카멜리아 힐-겨울의꽃 동백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00 출발 19:35 출발 홍천리안 마상소(현지직방) 동굴리안 마상소(현지직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인실 : 1박당 30,000원 추가 산악회 별도모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호텔식 중식 : 호텔식 석식 : 자유식
3일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 16:00 제주항도착 항공 18:00 제주공항도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00 출발 19:35 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형사항 : 산악발행공로, 현지차량료, 일원내의입장료, 숙식비, 여행자보험 항공료 : 제주(현지직방), 기차, 가이드비 1인 ₩10,000원 제주출발-목포-광주도착(20명이상선원명사) 1인 ₩2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식 : 자유식 석식 : 호텔식

※ 참가일정 은 현지사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상품은수중매키지않습니다 ※ 2인실 : 1박당 30,000원 추가 ※ 산악회 별도모의

※ 문의처 | 해외, 국내, 섬투어 전문여행사 **황제관광여행사** 광주광역시 북구 효산로 5 ☎ 062)267-8580 ★ 담당자 | 문봉구 H.P 010-3999-3226 FAX 062-267-8581

2015년 겨울방학특선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축제

기간 | 2015년 1월 10일(토) ~ 2월 1일(일)까지 무박2일, 1박2일 장소 |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 축제장 회원님을모시합니다

무박2일

출발지 : 광주역 23:00 집결, 23:30 출발

포함사항 : 전용버스, 입장료, 숙박(3박), 중식(상등권), 여행자보험

회비 : 주중 ₩89,000원 주말(금, 토, 일) ₩99,000원

1박2일

1일째 ▶ 광주역 08:00 출발 - 남이섬 - 강원도 화천군 숙박

2일째 ▶ 조식후 - 산천어 축제장 - 15:00 출발 - 광주

포함사항 : 전용버스, 전일정 입장료, 숙박(2박) 4인(실), 중식, 식사(중식2회, 석식1회, 조식1회), 여행자 보험

회비 : 주중 ₩169,000원 주말(금, 토, 일) ₩189,000원

※ 20명이상출발가능 ※ 예약담당문의 H.P : 010-3999-3226

황제 산악회 매월 첫째주 화요일 07:30, 광주역 08:00, 문예회관 08:10 출발합니다. 홍보의사 : 문봉구 H.P 010-3999-3226